

발행인 칼럼



가금현 발행인

울산광역시·여주시·서산시는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공단이 위치한 자치단체다. 이 세 곳은 환경오염원 배출과 화학사고, 정유 유출 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 대형사고의 주범으로 여론의 도마 위 단골 메뉴였다. 하지만 최근 도마 위 단골 메뉴에 울산과 여수는 보이지 않고, 서산만 올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석유화학공단이라면 이 세 곳이 똑같아야 할 텐데 왜 두 곳은 조용하고 한 곳만 요란하게 도마 위에 올라 난도질 당하고 있는가. 이에 지난 27일 서산시 대산읍에 위치한 대산석유화학공단 주변을 꼼꼼하게 둘러봤다. 대산을 똑같이 대산산단부터 대죽산단까지 둘러보면서 공장이 살아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무수한 굴

울산석유화학공단과 서산석유화학공단의 차이

뚝에서 피어나는 불꽃연기와 수증기, 공장이 가동되면서 울려 퍼지는 우렁찬 굉음, 머리가 어질어질해지는 이상아릇한 냄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경험을 통해 서산 석유화학공단이 힘차게 가동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28일 본 취재진은 환경전문가와 함께 울산 석유화학공단을 방문하게 됐다. 반가운 것은 서산에서 본 기업의 간판이 이곳에서도 눈에 보인다는 것이다.이곳은 광역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만이 자리하고 있는 줄 알았지만 듣도 보도 못한 기업들이 빼곡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서산시는 이들 기업 중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만 뽑아 세워졌다는 것을 알게 됐다. 문제는 공단에 진입했을 때다. 공장 가동이 모두 멈춰버린 듯한 느낌에 환경전문가에게 물었다. “오늘 이곳의 공장 모두 셧다운(가동중단 후 수리)중 인가요?”라고, 이에 전문가는 정성운영 중이라고 답했다. 끝이 보이지 않게 위치한 공장들

마다 세워진 무수한 굴뚝에는 시골 초가집에서 밥지를 때 솔잎태워 나오는 연기만큼도 안 되고, 공장 가동되며 내는 소리는 시골 방앗간 쌀 찰는 소리보다 더 적고, 냄새는 서산하수종말처리장 주변 산책할 때 맡는 것보다 못하니 공장 가동이 중단된 줄 알았던 것이다. 같은 기업이 울산에 있는 공장 굴뚝에서는 불꽃은 고사하고 연기조차 안 나오는데 왜 서산에있는 공장 굴뚝에서는 불꽃 쇼에 메케한 연기를 내뿜을까. 두 곳을 방문하면서 이 같은 의문이 남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겠다 싶 어 전문가에게 다시 물었다. 왜 울산 석유화학공단은 굴뚝의 매연과 악취가 없냐고. 답은 생각외로 간단했다. 울산은 굴뚝을 통해 나오는 매연과 악취를 모두 포집해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고 있다고 했다. 서산은 왜 안 되는가? 라는 답변에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시설투자를 해야 한다’는 말이 돌아왔다. 뒤집어 말하면 울산의 공장은 시설투자를 통해 환경오염원을 줄여 에너지를 만들고 있지만, 서산시에

위치한 석유화학단지의 기업들은 시설투자를 하지 않아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한다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이들 기업을 관리 감독해야 할 관계 당국인 금강유역환경청, 충청남도, 서산시의 미온적인 행정력이 문제다. 울산이 되면 서산도 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 혹 국가산단과 지방산단의 차이라고 얘기하는 공직자도 있지만 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말이다. 국가산단에서는 법을 지켜야 하고, 지방산단에서는 법을 어겨도 된단 말인가. 법이 없으면 사례를 따르면 된다. 지금이라도 양승조 도지사와 맹정호 서산시장은 관계 공무원을 울산 석유화학단지에서 파견, 서산공단과 울산 공단을 비교분석 문제점을 바로잡도록 해야 한다. 서산이 울산보다 7년 늦는다고 하는 소리가 현장에 답이 있었다. 충남도나 서산시가 답이 있는 현장을 보지 않고, 눈감으면 주민의 생명을 담보로 격차는 더 벌어진다 는 사실을 알기 바란다.

사설

여교사 화장실 불법 촬영카메라 설치한 교장 ‘현 교육계 현실’

최근 교육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교육계의 사건 사고에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계인지 어디동절하게 하는 것들이 많다. 지난달 경기도 안양양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현직 초등학교 교장 A 씨를 검거했다고 밝혀 교육계는 물론 전국이 발칵 뒤집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교장은 최근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소형 카메라 한 대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현장에서 발견된 카메라에서 신체를 촬영한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A 교장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영상물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 교장은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맞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는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는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교육청의 조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지면 해당 교장을 교단에서 영구 퇴출하는 등 일벌백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경기교총은 공동성명을 통해 학교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가장 비교육적인 사건이 그것도 학교장에 의해 이뤄졌다는 데 충격을 금치 못하겠다고 했다. 또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학생을 양장서 보호해야 할 학교장이 범법을 했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교직 윤리를 스스로 어긴 교원은 교단에서 영구히 배제되어야 묵묵히 학생 교육에만 전념하는 절대다수 교원의 명예와 자긍심을 지킬 수 있다고 했다. 옳은 말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계는 교원과 함께 교직 윤리 실천을 통한 성 비위 없는 깨끗한 교직 사회 만들기에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충주시교육지원청, ‘꿈기움 마켓’ 개소

충주시 무학시장 내(내) 청소년 창업공간 마련

충주시 무학시장 내에 청소년 창업공간 ‘꿈기움 마켓’이 지난 2일 문을 열었다. ‘꿈기움 마켓’은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응환)이 소유자에게 무상제공 받은 건물 1층 공간에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한 창업동아리 학생들이 만든 물건을 전시·판매 하고, 특수학교 학생들이 카페를 운영하는 공간으로 운영된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자신이 만든 물건을 시장 상점에 전시·판매해보는 경험을 통해 예비 청년 사업가로서 두려움보다는 열정이 가득한 청년으로의 성장을 돕고, 미래 지역의 든든한 소상공인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충주시 특성화고등학교 ▲충주공고 생활가구, 소품 주문제작, 태양광 자가발전 시공(서비스창업) ▲충주상고 반려동물용품, 공예작품, 전자상거래구축 ▲한림디자인고 철보공예품, 수제 네일팁, 휴패션 ▲송덕학교(특수학교) 아띠 커피숍 운영 등이 한 공간에서 짜임새 있게 이뤄질 예

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특별 전시행사와 오세초등학교 창업동아리 학생들이 특별 참여해 작품들을 전시하며 솜씨를 발휘했다. 개소식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김성근 부교육감, 충주시 문화체육관광 국장, 충주시 순경수, 박해수, 이희수 의원, 충주교육지원청 김응환 교육장, 5개교 학교장, 이산특 무학시장 상인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개소식 이후 꿈기움 마켓은 특성화고등학교 창업동아리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물품 전시와 행사 거점공간으로 활용되며, 특수학교에서는 평일에 카페로 운영되어 전시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역할을 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응환 교육장은 “청년창업은 미래 사회의 중요한 역량으로, 실패도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다”라며, “앞으로 학생들이 도전과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역량을 가질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박철우 기자

CTN 논단



가갑손
충청대학교 명예교수

나라.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는 역사학자. 소설가. 극작가였던 고 신봉승 선생의 국가관 무엇인가? 서문의 제목이다. 우리 곁에는 국가가 없고 정당. 기업만 있고 학교에도 국가가 없고 입시만 있다. 국가는 정당보다 우위에 있어야 하고 기업의 이익보다 우선

나라.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

해야 한다. 대통령이나 정당 지도자, 대학교수들과 같은 사회 지도층들이 국가론을 입에 담고 있지만 그들의 행동에는 그런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우리 현대사가 어둠의 질곡을 방불케 할 정도로 참담한 것은 국가에 대한 지식인들의 말과 행동이 달랐기 때문이다. 국가관이 확립되었을 때 나라는 흥했고 국가관이 무너지면 나라는 망했다는 사실은 논리가 아니라 결과였음을 우리 역사는 소상히 적어놓고 있다.망했을 때의 역사를 되풀이 하는 것은 지식인들이 할 것은 아니다. 틀림없이 망하기 때문이다. 대

한민국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정치인, 기업인 또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법치주의이다.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고 자유시장경제가 무너지고 법치가 아닌 인치로 변해가고 있다. 국민의 먹고살고, 죽고사는 최고의 정치는 안보, 경제다. 여의도 국회에는 여야 전쟁터가 된지 오래이다. 다수당의 횡포장이 되었다. 지역, 노사, 계층갈등으로 무엇하나 할 수 없다. 협치, 협력, 용서를 잊은지 오래다. 이를 해결할 지도자는 눈썹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

는다. 전직대통령들이 타살. 자살로 죽고 각종 죄목으로 수감되기도 하고 69세인 분과 80세인 분은 수감되었다. 세계사에 없는 대통령 수난 역사이다. 정치 관련 사건은 정치로 풀어야 한다. 그래야 다음 대통령이 마음 놓는다. 언제부터 착한 우리 국민이 이렇게 약해졌는지? 아무도 모른다. 남북 분단도 서러운데 북한의 핵 위협도 무서워하지 않는 담대한 국민이 되었다. 평화, 중전선언은 튼튼한 국방력이 없애지지 않는다. 위기를 모르는 것이 최대위기를 알아야 한다.(신봉승 선생의 글을 일부 인용)

[만물창고]

복수불반분(覆水不返盆)



한성진
CTN교육신문 편집국장

고사성어 ‘복수불반분’(覆水不返盆)은 앞지른 물은 다시는 물동이로 되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으로 한 번 저지른 일은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내용이다. 원래는 한 번 헤어진 부부는 다시 돌이킬 수 없고, 한 번 헤어진 벼는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다. 중국 주(周)나라를 세운 ‘무왕’(武王)의 아버지, ‘문왕’(文王)의 시호를 가진 ‘서백’이 어느 날 황하강지류인 위수로 사냥 나갔다가 파곤에 지쳐 강가를 거닐던 중 낚시를 하고 있는 초라한 행색의 한 노인을 만났다. 수인사를 나누고 잠시 세상사 이야기를 하다가 서백은 깜짝 놀라고 만다. 초라한 늙은 시골 노인이 외모와는 달리 식견과 정연한 논리가 범상치 않았다. 단순히 세상을 오래 산 늙은이가 가질 수 있는 지식 정도가 아니라 깊은 학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뛰어난 논리였다. 잠깐의 시침

으로 끝낼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한 서백은 노인 앞에 공손하게 엎드려 물었다. “어르신! 함자는 무슨 자를 쓰십니까?” “성은 강(姜)이고 이름은 여상(呂尚)이라 하오.”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 제가 스승으로 모셔야 할 분으로 여겨집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너무 과한 말씀이오. 이런 촌구석에 사는 농부가 뭘 알겠소.” ‘강여상’은 거듭 사양을 했으나 서백의 끈질긴 설득으로 끝내 그의 집으로 따라갔다. 그때 강여상은 기이조차 잊기 힘든 곤궁한 상태였고, 아내 ‘馬씨’는 이를 못보고 집을 나간 상태였다. 강여상은 서백의 집으로 따라가 그의 아들 ‘발’의 스승이 돼 글을 가르쳤다. 그 발이 바로 주나라를 창건한 무왕이고 강여상은 주나라의 ‘재상’(宰相)이 되어 탁월한 식견과 놀라운 지도력을 발휘했다. 강여상이 어느 날 가마를 타고 행차를 하는데 거지 노파가 앞을 가로 막았다. 바로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아내 馬씨였다. 남편 여상이 주나라 재상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천리길을 걸어온 것이다. 마씨는 땅에 엎드려 울면서 용서를 빌었다. 강여상은 하인을 시켜 물 한 동이를 떠 오게 한 후 마씨 앞에 물동이

를 뒤집어 었었다. 물은 다 쏟아지고 빈 동이는 흙바닥에 나뒹굴었다. 그런 후 마씨에게 “이 동이에 쏟아진 물을 도로 담으시오. 그렇게만 한다면 당신을 용서하고 집에 데려가겠소” 마씨는 울부짖으며 말했다. “아니! 한번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도로 담으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강여상은 그 말을 듣고 “맞지만 이번 쏘은 물은 주워담을 수 없고 한번 집과 남편을 두고 떠난 아내는 다시 돌아올 수 없소” 마씨는 호화로운 마차에 올라 멀리 떠나가려는 남편 강씨를 멍하니 바라보다 눈물만 흘렸다. ‘노인 ‘강여상’이 바로 낚시로 세를을 낚았다는 ‘강태공’이다. 이 복수불반분(覆水不返盆)의 이야기는 긴 세월 동안 전승돼 오늘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조선 숙종 때 작자 미상의 고전 소설인 ‘육단춘전’(玉丹春傳)에 한 마을에 ‘김진희’(金眞喜)와 ‘이혈룡’(李血龍)이라는 같은 또래의 아이 두 명이 있었다. 둘은 동문수학하며 형제같이 우의(友誼)가 두터워 장차 어른이 되어 서로 돕고 살기로 언약했다. 커서 김진희는 과거에 급제해 평안감사가 됐으나, 이혈룡은 과거를 보지 못하고 노모와 처자를 데리고 가난하게 살아가던 중 평양감사가 된 친구 진희를 찾아갔지만 진희가 만나주지

않았다. 하루는 연광정(鍊光亭)에서 평양감사가 잔치를 한다는 말을 듣고 다시 찾아갔으나 진희는 초라한 몰골의 혈룡을 막대하면서, 사공을 시켜 대동강으로 데려가 물에 빠뜨려 그를 죽이라고 한다. 이때, ‘육단춘’이라는 기생이 혈룡이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사공을 매수, 혈룡을 구해 그녀 집으로 데려가 가연(佳緣)을 맺는다. 그리고 육단춘은 이혈룡의 식물들까지 보살피고 준다. 그 후 혈룡은 육단춘의 도움을 받아 과거에 급제, 암행어사가 돼 결인행성으로 평양으로 간다. 연광정에서 잔치하던 진희가 혈룡이가 다시 찾아온 것을 보고는 재차 잡아 죽이라고 하자, ‘어사출도’를 해 진희의 죄를 엄하게 다스린다. 그 뒤 혈룡은 우의정에까지 오른다. 어린 날의 맹세를 생각하며 찾아온 이혈룡을 멀리, 죽이려 한 김진희는 겉으로는 우의(友誼)를 내세우며 자신의 체면과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우정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양반층의 숨겨져 있는 추악하고 잔인한 이중적인 본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강태공과의 천생연분을 함부로 끊은 아내 馬씨와 이혈룡과의 친구간 우애를 갈로 무자르듯 잘라버린 김진희는 말로가 매우 비참해졌다. 이것은 상식이다. 글이 좋아 보내온 특을 참조했다.

보은 세종초, 세종 느티나무 축제 개최

세종초등학교는 28일 2021년 한 해 동안 학교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재능을 세종 느티나무 축제를 통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공개했다. 철저한 방역 관리하에 진행된 이번 축제는 학교 내 작은 무대를 마련하여 전교생과 교직원들의 응원 속에서 내 꿈과 끼를 펼치는 좋은 기회가 됐다. 이번 축제는 세종초등학교가 자랑하는 타악양상블 ‘궁명’의 연주 무대를 시작으로 플루트, 피아노 듀엣, 기타와 우쿨렐레 연주 및 학년별 무용 등으로 이뤄졌다. 타악양상블 ‘궁명’은 마립바, 드럼, 실로폰, 비브라폰 등의 타악기로

여인의 향기 OST 등 6곡을 연주했으며, 플루트는 4-6학년 콰이어의 다리, 피아노는 비인행진곡 등 여러 곡을 연주했다. 기타와 우쿨렐레로는 ‘바람이 불어 오는 곳’과 ‘나의 의미’를 연주하며 함께 노래를 불렀고, 유치원 원아들은 ‘바나나차차’ 율동을 선보여 재능을 한껏 자랑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학부모 및 많은 분이 직접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전문 영상 기술을 가진 교사들의 노력으로 녹화, 편집된 영상을 집에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 만나 볼 수 있도록 했다. /이귀국 기자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

CTN

http://www.ctnedu.kr

참교육을 선도해가는

CTN

교육신문

2014년 9월 1일 (주)간

등록번호 충남, D401378

발행·편집인 가금현 / 편집국장 한성진 / 인쇄 디엠코리아(주)

뉴스전화: 041-631-8114 / 광고문의: 080-631-8114 / 010-4222-9009

주소 : [32416] 충남 예산군 삼교읍 청사로225 엔젤스타워2차 309호

독자서비스센터 : 041-337-1791 / 팩스 : 041-337-1790

E-mail : ctn114@hanmail.net / 홈페이지 : http://www.ctnews.kr

구독료 : 월 1만2000원 / 자매지 월간총합

본지는 충청남도뉴스연맹 CTN이 발행하며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